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2남, 3·4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2월 수요일집회는 이범석 목사가 마가복음을 강의합니다.

유초등부 겨울수련회가 2월 18~19일에 열립니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무절제한 난방 · 에너지 사용을 삼갑니다.

식 당 봉 사 : 김금순 박영신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박영희 김종락  
 2/12식 당 봉 사 : 이형숙 박혜자 권미숙 김수진a이미혜 최숙화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박시내 최은미 이성범 류준모 심호선  
 다음 주 설거지 : 박윤숙 김기성 최경미 이종배  
 새 교 우 : 정수현(청년) 양재민(청년) 안보혜(청년) 이제영(청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일상과 추운 날씨를 탓하며 자신의 생활에만 매여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자기 욕심 채기기에 급급하며 쪼그라든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 주시고, 추위로 움츠러든 우리의 손과 발을 펼쳐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

겨울의 한 가운데 입춘의 절기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입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냉랭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봄의 기운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곧 이 추운 세상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옴을 알리는 주님의 전령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곽새롬	권미정	김경연	김문주	김수진	김승현
김순자	김순진B	김영아	김인걸	문영혜	김정애B	김종술	김박미란	김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	방민란
방준	배재경	이수정	서수진	서정순	안세진	오승혜	양상철	박재란
왕수명	윤성중	김윤정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봉옥	이예서	이우원
옥귀희	이지훈	이창석	박수경	이태양	이한림	김명희	임승동	백혜숙
임창선	장다운	장동훈	정은선	장영숙	장재영	김재연	전희수	정두리
정복순	정재윤	정미경	정재정	정현숙	조병익	조정연	하정석	이명희
한상균	홍춘숙	황영준	LK					

### 감사헌금:

김명순 이보영 김일랑 이은옥 김재영 박근혜 이인웅 오승경 임승동  
 백혜숙 정선희 한학수 홍성식 이유리 무명6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정훈 김준우 우순덕 무명3

### 생일감사헌금: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정두리

	장혜숙	백혜숙	연합회	정두리
	노순옥	박성희		노순옥
	최희영	최경미		최희영
	장영숙	신영신		김진경
	정경례	진정숙		문금석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박효선	허정운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김권미		이구성
	안홍숙	오현정		구오현
	정영선	서정순		정영현
	박혜경	조항미		정영현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 어떻게 완전히 불행해질 수 있는가

- 자기만 생각하십시오.
- 자기에 관한 말만 하십시오.
- 할 수 있는 한 '나'라는 말을 많이 쓰십시오.
-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하는 말에 신경을 쓰십시오.
-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십시오.
-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마십시오.
- 비판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 배려하고 존경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자기에게 좋은 시간만 고집하십시오.
-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 익명의 저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려운 이를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의 아픔을 감싸 주십시오. 그를 보살피는 것이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앞만 보며 달려갈 뿐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를 기꺼이 도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맘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남, 3·4여선교회 주관예배 설교 : 손성현 전도사	마가복음 인도 : 이범석 목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신진식 선생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박홍재 권사

2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범희 이근식 고숙이 박미영 신영신
	헌금위원	한상익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꼬마 성자

한 백 년 전, 오래된 마을에 오래된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엔 큰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은 영성이 빼어난 분이였다. 큰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들은 큰 스승을 사모했다. 큰 스승도 제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한 제자에게 정이 각별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오른이’였다. 모든 제자들은 오른이를 질투하고 시기했다. 그들은 큰 스승이 오른이에게 각별한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오른이는 지적능력에서 그들보다 훨씬 뒤지는 자였기 때문이다. 경전을 암송하는 데도 가장 느렸고, 신의 개념을 토론하는 데도 가장 우둔했다. 한마디로 머리가 좀 모자라고, 똑똑지 못한 위인이었다. ...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른이만 제외시키고 제자 전원이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오른이를 향한 큰 스승의 애정을 참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버린 그들은 오른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

큰 스승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었다.

“자아, 여기 새가 가득 담긴 새장이 있다. 너희들은 각자 새 한 마리씩을 꺼내어 가지도록 해라.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새를 죽인 후에 그 죽은 새를 해질녘까지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를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

그 날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저녁 해가 서쪽 하늘을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잠시 후면 땅 거미가 내려 어두워질 터였다. 제자들은 하나씩 또는 두셋씩 짝을 지어 사찰로 돌아왔다.

큰 스승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제자들은 죽은 새를 스승이 앉아 계시는 땅 위에 내려놓았다. 잠깐 사이에 스승 앞에는 죽은 새가 더미더미 쌓여갔다. 드디어 해가 떨어지고, 오른이만 빼 제자 전원이 죽은 새를 스승 앞에 내려놓았다.

“다 모였느냐?”

“오른이만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우쭐하여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헐레벌떡 오른이가 들어왔다. 작은 새장 하나를 여전히 손에 든 채.....

새장에는 새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 새는 살아서 짹짹거리고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제자 전원이 큰 스승의 시험 문제에 합격했는데, 오른이 한 사람만 기어코 불합격을 한 것이다.

큰 스승이 큰소리로 물었다.

“내가 낸 시험 문제를 다 풀었느냐? 이 시험 문제가.....”

스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자들은 스승의 말 자락을 잡아채어 대답했다.

“다 풀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구요! 오른이는 아직도 문제조차 모르고 있나 봅니다.” ...

스승은 오른이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아, 오른아. 네가 죽인 새는 어디에 있느냐?”

“스승님..... 스승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가든지 그곳에는 신이 계셨습니다. 신께서 보고 계시므로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이의 해명에 모두들 “혹!” 놀란 숨을 들이키고 말았다. 이들을 쓰윽 훑어본 스승은 미소를 지었다. ...

오른이는 말없이 스승 앞에 쌓여 있는 죽은 새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죽은 새들이 가없게 생각되어 ‘다시 살려낼 방법은 없을까?’ 하고 속으로 바랐다.

큰 스승은 그의 생각을 읽어내고, 죽은 새들 위로 손을 뻗어 경을 외었다. 새들은 다시 살아 밤하늘 속으로 힘차게 날아가 버렸다. 그 후 제자들은 스승에게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